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기도서 291 면(B해)

제1독서: 사 도 4, 8-12

제2독서: I 요한 3, 1-2

복 음: 요 한 10, 11-18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요한 10, 11)

□ 강론



## 회 想

문 규 현 신부

“우리 전주로 이사하지...”

“어떻게 먹고 살게요? 다 정리해야 겨우 한 칸 방 전세돈 밖에 안될 텐데요.”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바오로를 위해서 이사 해야겠어!”

어느날 아버님과 어머니의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나는 사제 생활관의 문제로 본당신부님과 의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간에 저의 부모님은 나의 사제의 길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그해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먹고 살 대책이나 보장조차도 없이 생활 근거가 없는 곳으로 전세 한 칸 얻을 돈 밖에 가진 것 없이 내린 결단, 그 결단은 당시의 나에게 충격적인 교훈이었고 사제생활을 하는 오늘에도 큰 교훈이며 오늘의 나의 생활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사제의 길은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아랑곳 하지 않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가진 한 인간인 나의 부모에게 사제적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가꾸어야 할 만큼 소중한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주일에 이런 회상을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당신 생을 다 바쳐 사제직을 가꾸고자 하심에서 하느님의 초대를 느꼈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백성을 당신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다같이 하느님 백성의 이 사제적이 구체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성직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완성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하느님 뜻 안에 있다면 하느님의 뜻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봉사의 삶은 고귀한 것입니다.

함께 초대하고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 부르심과 응답

-이 시대의 문제들과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 의식있는 사람들이 쉽게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윤리성의 결여에서 오는 정치문제·학생문제·노사문제·청소년문제·갈팡질팡하는 국민의식 문제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진실과 사랑」이 결여된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우수 기업인 대우가 노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노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철저한 보도관제(?)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노사문제의 바탕을, 가장 정보에 민감한 기자들은 ① 어용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 ② 사용자들의 안이한 근로대책, ③ 요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위장취업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문제의 당사자인 대우그룹 총수는, 노사문제가 비롯되는 한 원인으로 “소위 앞서 가는 자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이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주들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의 처우를 해주었다는가를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모두 옳은 말이다.

오늘은 성소주일이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은 성소(부르심)를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 자신이 베푸는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받게 한다는 성서상의 가르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 앞에서 「하느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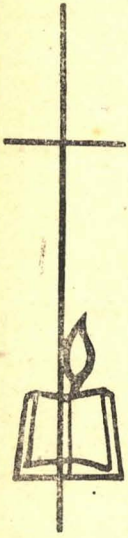
## 숲 정 이 산책



어서들여오시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소식 루가24 : 47



루가는 이제 예수의 승천을 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예수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다(24 : 44-49). 「모세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유언」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유언」은 죽을 임시의 유언이 아니라, 승천 임시의 유언이다.

예수의 유언은 세 가지(46, 47, 49절)인데, 본문(本文) 말씀은 둘째 유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47절). 이것은 복음전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를 근거로 해서」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참다운 전도라는 것이다. 죄를 사하기 위한 회개는 바로 전도의 내용인 것이다. 이것은 요한 세자가 이미 말한 것이나(루가 3 : 3, 8), 예수의 전(全) 전도도 역시 여기에 귀결된다(마태 1 : 15). 제자들은 실제 이 명령에 따랐다(행 2 : 28, 3 : 19, 5 : 30-31, 26 : 18).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세 유언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종교이다. 죄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불교처럼 대오각(覺) 하는 「머리」의 만족도 아니고, 의식(儀式)과 망아(忘我)의 삼매에 빠지는 「감정」의 만족도 아닌 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죄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난과 부활은 그리스도 전(全) 생애의 목적이며 정점이다. 구약성서는 이 예언이다. 이 세 유언은 전(全) 성서의 요약, 그리스도교의 간단한 정의(定義)이다.

### \*\*\*\*\*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

부활 제 4 주일은 성소주일이다.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 전체의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서도 그분 자신의 사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협력 즉 서품된 직무, 봉헌된 생활, 선교생활에의 탁월한 소명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며 당면문제인 성소자 증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날이다.

우리는 외국의 성소감소에 대한 위기적인 얘기를 흔히 듣고 있으나 한국 교회는 그와 반대로 성소자가 불어나고 있다. 서울, 광주, 부산의 기존 두 대신학교에 이어 대구(82년 개교), 수원(84년 개교)가톨릭 대학이 각각 신설되었다. 수도자 성소 역시 외국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의 급증과 교회성장에 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성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목자인 사제의 부족은 안타까울 정도이다.

우리 교구는 신자 83,000여명에 비해 사제 95명 중 실제 사목활동 사제는 48명으로 약 1700 : 1의 비율이다.

교구 신학생 현황을 보면 부제 2명과 올해 입학생 8명, 군복무 18명을 모두 포함하여 47명이다. 교구에서는 사제양성 후원회가 몇년 전부터 조직되어 사제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성소지도 위원회(교육국)에서는 해마다 사제성소 지망자를 위해 년 4회의 피정과 6회의 모임을, 수도성소 지망자를 위해서는 년 2회의 피정을

갖는 등 젊은이들에게 성소에 대한 매력울 갖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소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자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사도, 복음의 사제를 더욱 갈망하고 있다. 교회는 이 인간사회에 파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해방과 사회구원의 사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원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활동의 무한한 분야 중에서 교회에 직접 봉사하는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 특히 젊은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성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사제, 또는 수도생활에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마음을, 거기서 따를 희생을 감내할 힘을,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기쁨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매년 이 때마다 으레히 치르는 행사로서의 성소주일 이 아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에 속한 사제, 수도성소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마태 9,37)하시는 주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자.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눈을 편하게

**보안당** **센터**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 2496 ㉡ 8653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 6 6 8  
자택 ㉠ 8 1 2 0

수입상품 일체  
종합 화장품 할인·약세사리

**은지코너**  
(최정희 미용실 옆)  
효자아파트 복합상가 1층  
박 상 순(세실리아)



## □ 정의와 평화를 위해 출발

“평화는 전쟁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專制的)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동안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키 위해서 담담하게 노력해온 교구 정평위원회가 그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진용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지난 3월, 8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교구 정평위에서는 새 임원을 선출 했고 교구장님께서 이를 정식 인준하심으로써 새 활동을 위해 새 임원진이 확정 구성된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지대한 활동을 우리 모두 기대한다.

### \*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임원진

회 장—이수현 신부(주현동 주임)

부회장—문정현 신부(장계 주임) · 조성호(해성중학교)

감 사—오현택 신부(금암동 주임) · 유장훈 신부(문율동 주임)

간 사—김동준 신부(사목국장)

① 인권분과 위원장—김봉희 신부(덕진 주임), 부위원장—박종상 신부(화산 주임)

② 사회경제분과 위원장—김병운 신부(관리국장),

부위원장—박창신 신부(오룡동 주임)

③ 교육분과 위원장—문규현 신부(교육국장), 부위원장—이주철(성심학교 서무과)

④ 홍보분과 위원장—김준호 신부(홍보국장), 부위원장—한상갑(해성고등학교)

새출발하는 정평위원회에서는 그 첫모임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더불어 총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일시: 1985. 4. 29. (월)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강당

주제: 대외국 정세와 한반도 정세, 연사: 박헌재(중앙대학 교수), 회비: 2,000원

## □ 술정이 명상

### 삶에 생기를

불나들이 차림에 밝게 웃음진 어린이가 손을 잡고 야외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방안에 갇아있기만 여간 고역이 아니다. 아니 괜히 질투심이 나지 않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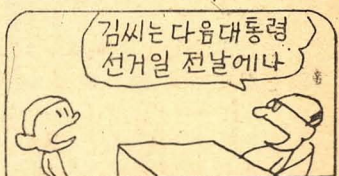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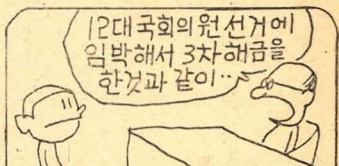
가끔은 이웃에 비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서글픔을 느껴야할 때가 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 마냥 약삭빠르고 재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푸념스런 생각이 자신의 생활에 회의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런 때 말이다.

약삭같이 사는 삶— 글썽다, 어찌면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나를대로의 처사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광과 안위만이 자기 것이고 그릇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만 돌려 버리는—그런 삶의 방식으로 약삭같이 사는 방식이 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알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될듯 하면서도 안되는 것이 인간사가 아닌가. 자기가 직접하고 있는 일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는 것일게다. 누가 그랬던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누구나가 저마다 행복한 역, 중요한 역을 맡고 싶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조차 내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듯, 어떤 역을 맡느냐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맡은 인생의 역할에 성실성의껏 노력하고 감당하면서 내 지혜와 성의와 능력으로 보람과 가치를 얻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삶의 심호흡—, 새싹이 한창인 들판에 나가서 봄의 생기라도 한껏 들이켜 보자.

## 요심이 (612) 김병오



### 토탈패션 바로방

\* 숙녀 의류 · 악세사리  
교우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경 자**(소피아)  
전주백화점,  
진선미꽃집 건너편

### 고려페인트 대리점

\* 각종 페인트 도산매  
\* 공사청부 \* 집수리 전문  
\*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

### 대한 도장공사

김 의 화(요셉)  
☎ ③4874, ④6522  
전주 서노송동(중앙성당 옆)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네티지

도매상

### 서울주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 현대 미용학원

전주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데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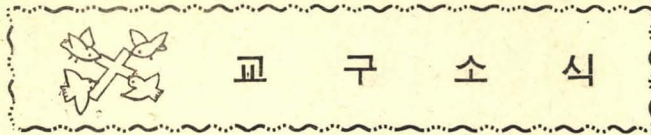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 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해 겹(글라라)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비뇨기과  
원장 전문의 崔 昌 基(우가)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글라라)  
☎ ③ 1719 · ④ 0616(상담전화)  
(구역전 오거리 · 팔달로 동편 2층)

(4) 순 정 이



1. 견진성사 : 문율동 천주교회 28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
2. 대학생주일 : 28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3. 교구 혼인법원 : 30일(화요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4. 제11차 마리아 푸른군대 특별피정 : 일시-5월 2일 오전 10시~오후5시, 장소-노송동 성당, 강사-오태순 신부님(서울 면목동)·권이복 신부님(동산촌), 준비물-피정 및 미사도구, 접수비-1천원, 도시락 지참, 기타 자세한 연락처 : 전주시 전동 2가 76(구, 성모병원 3층 309호) 72-3925
5. 성모기사회 피정 : 일시-5월 4일(토) 오전 9시30분,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회비 없음  
특강-한국기사회 총본부 지로교 신부님, 준비물-성모의 기사회 4월호 책자 지참, 도시락 지참
6. 불교특강 : 일시-5월 5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강사-정인재 교수(서강대 철학과 교수, 대만 문화학원 철학박사 및 대만국가 박사), 수강료-2천원
7. 옥봉 천주교회 축성식 : 일시-5월 6일(월요일) 오전 11시, 집전-박정일 주교님
8. 여자 수도 성소 피정 : 주제-나를 부르소서, 일시-5월 11일~12일(토요일 오후 4시 등록), 대상-여교 1년이상·매·일반여성,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4천원, 지참물-세면도구·필기도구·미사도구(성경)  
빛을 향하여 나가는 삶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성소주일 수녀원 개방 : ① 성체회 본원-오전 10시~오후 3시 ☎ ③3231  
② 동정성모회 이리분원(성모병원)-오후 2시~5시 이리 ③3783

<p>※ 시민강좌①-민주현실과 민족운동의 과제 일시-29일(월요일) 오후 8시 장소-이리 주현동 천주교회 연사-성유보 선생(해직 동아일보 기자)</p>	<p>※ 시민강좌②-부산 미문화원 사건을 돌아보며 일시-30일(화요일)오후 8시 장소-중앙 천주교회 연사-최기식 신부</p>
--	---

전주시 서노송동 639-3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⑤ 1 7 1 3
주임신부 성 민 호		수 녀 원 ⑤ 1 7 1 2
보좌신부 한 정 현		사 무 실 ⑤ 1 7 1 1
사도회장 김 인 협		

- ☆ 미사시간  
일요일 : 오전 6시·9시-학생, 오전 10시30분-공식  
오후 3시-어린이, 7시-오후  
월요일 : 오전 6시, 화~목요일-오전 6시·오후 7시  
금요일 : 오전 10시30분-어머니·오후 7시  
토요일-오전 6시, 오후 7시-특전
- ☆ 예비자 교리(9월반)  
일반인 : 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 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 성소주일 : 금일 성소후원을 위한 2차 특별헌금 있음
1. 성소주일 행사 : 교동학생-성체수녀원 방문  
중학생-야외교리(팔각정)
  2. 9월반 예비자 : 새로 시작된 9월 영세반에 예비자들을 많이 인도합시다
  3. 전교지(행복) : 천주교회를 소개하는 전교지(행복)을 만들었습니다.

- 전교활동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5월 3일(성야고버)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하식-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공소미사 : 금일 오후 5시(매월 마지막주)
  6. 금주행사 : 울뜨레아-금일 공식미사 후  
방지거 3회-금일 1일 피정  
성심부녀회-5월 3일 어머니미사 후  
사도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봉헌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제의-방춘원(5만원)  
스피커-대한기업사 송동석(7만원)
  7. 특별헌금 : 김춘수·고숙-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928,462원 교무금 : 508,500원